

# 국어국문학(과)의 위기와 스토리텔링

이용욱(전주대)

## 〈 목 차 〉

- |                         |                         |
|-------------------------|-------------------------|
| 1. 신자유주의 교육시장과 국어문학     | 4. 실용 교과목 개발 사례 : 스토리텔링 |
| 2. 아카데미즘의 퇴조와 위기의 국어국문학 | 교육을 접목한 산학협력프로젝트        |
| 3. 이제 문제는 스토리텔링이다       | 5. 나오는 말                |

## 1. 신자유주의 교육시장과 국어국문학

1926년 경성제국대학에 법문학부 조선어문학과가 처음 설치되면서 시작된 국어국문학과의 역사는 1946년 8월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국어국문학과가 신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sup>1)</sup> 201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03개 대학에 국어국문학과 또는 국어국문학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유사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전국의 194개 4년제 일반대학 중 절반 이상의 대학에 국어국문학과가 설치되어 있을 만큼 국어국문학과는 해방 이후 시작된 근대 대학 교육의 상징적인 전공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면서 대학마다 철학과 역사 관련 학과들이 폐과되거나 유사전공으로 통폐합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1) 김기문, 「국어국문학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어국문학』 제114권, 국어국문학회, 468면, 1995.

로 국어국문학과가 그 위기에서 한발 빚겨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배운다는 학문적 자부심과 아카데미즘적인 전통이 여전히 대학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상황은 급변했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신봉한 경제학 박사 출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재정지원과 연계한 ‘부실대학 선정’이라는 반교육적인 정책으로 대학을 무한경쟁 체제로 몰아 붙였다. 정권 초기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몇몇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률, 중도탈락률, 취업률 등 성과 지표 관리에 사활을 걸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성과로 포장되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순위 경쟁의 광풍에 휩싸이게 된다.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의 칼을 뽑아들었고,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조정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대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세운 성과지표를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고스란히 대학 행정에 빙의된 것이다.

이같은 국가의 권력 오용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취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문학 전공들이다. 90년대 인문학의 위기는 반성과 성찰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수면 하에 깔려 있었지만 작금의 위기는 교육 시스템의 붕괴와 전공으로서의 존재가치 상실, 그리고 교수 신분의 불안감과 맞물려 학문 전체의 무력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이미 구조조정을 겪었던 역사나 철학전공이 살아남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교양 논술’을 선점한 상황에서 이제부터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아야 하는 국어국문학이 실용을 내세워 선택할 아이템이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2003년 한국고전문학회회는 “**新文明** 사회에 있어서 **國文學科**의 **制度的** 개혁과 **學問的** 쇄신 문제”라는 주제로 매우 의미 있는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한기형은 「국어국문학(과)의 미래지향적 변화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작금의 국어국문학(과)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규모의 자족성 - 학문적 폐쇄성의 기반
- 2) 교수구성 원리 - 남성중심의 순혈주의
- 3) 고정된 커리큘럼 - 교육에 대한 제도적 무관심

- 4) 3대 분야·4소분과의 재생산 구조 확립 - 연구 분야 안정화의 위협성
- 5) 국가제도예의 종속 심화 - 자기조절 시스템의 부재

한기형의 지적은 10년이 지난 지금 읽어보아도 매우 설득력 있게 국어국문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특히 ‘학문적 폐쇄성’과 ‘자기조절 시스템 부재’는 국어국문학(과)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거나 저지시켰고 그 결과 2011학년도에 국어국문학(전공)은 취업률 평균 39.3%로 전국 4년제 대학에 설치된 121개 전공 중에서 99위를 차지하였다. 취업률만 놓고 보면 국어국문학(전공)은 폐과되어야 마땅하다.

취업률 갖고 학문의 운명을 논할 수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냉혹하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한국의 대학 교육을 다 망쳤다고 비분강개할 수 있지만, 전공을 선택할 때 일순위가 취업률인 요즘 대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대학 교육이 실용 실무 지식 중심으로의 변화는 역사의 필연적 흐름이다. 근대 산업혁명의 산물인 지금의 대학 시스템이 정보화혁명의 물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현재의 위기는 대학 교육의 주체인 교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아카데미즘의 온실 안에서 자족하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국어국문학(과)의 운명은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은 구조조정 대상이거나 일순위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느리거나 빠르거나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겠으나 부분 보완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그 방향성을 유지될 것이다. 교육 수장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정말 국어국문학(과)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현실과 소통하기 위해, 전국 백세 군데 4년제 국어국문학(과)에 다니고 있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 국어국문학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학문 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여야 한다.

## 2. 아카데미즘의 퇴조와 위기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의 위기는 비단 한국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로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 기초인문학은 경제사회에 대한 효용을 거의 상실한 ‘허학(虛學)’이라는 비꼬임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해체, 소멸되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동경도립대학 인문학부의 재편이다. 종래 동경도립대학 인문학부의 편성은 철학과, 사학과, 심리·교육학과(심리학전공, 교육학전공),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문학과(국문학전공, 중국문학전공, 영문학전공, 독문학전공, 불문학전공)이었다. 그런데 신구상에서는 ‘도시교양학부 인문·사회과학계’로 바뀌어 사회학코스(사회학, 사회인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코스(심리학, 교육학), 국제문화코스(철학, 역사학, 국제문화)라는 코스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문학전공’을 포함한 종래의 ‘문학과’는 완전히 해체되었다.<sup>2)</sup>

일본처럼 급속하게 해체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는 계류과도 같다. 가장 한국적인 전공이며, 학과의 역사가 학교의 역사와 맞물려 있고 홍보 팸플릿의 맨 앞자리에 놓인다는 상징성이 언제까지 취업률의 높은 파고를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국어국문학’이라는 명칭이 친숙하고 상식적인 장점도 있지만 고리타분하고 관습적이고 비실용적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기에 대학마다 신세대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과 명칭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국어국문학(과)를 한국어문학(과)나 한국어언어문학(과), 한국어학(과)로 변경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취업 중심 실용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사 3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학과 선정 기준으로 학과명에 ‘한국’이라는 명칭이 필히 들어가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일반학과의 교직 과정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어교사 자격증이 신입생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명칭 변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sup>3)</sup>

2) 시마무라 테루, 『일본 대학 구조개혁에 있어서 ‘국어국문학과’의 현실과 국문학의 진로』, 한국고전문학회 2003년도 기획학술대회 자료집, 37면, 2003.

학과와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혀 새로운 과로 변태한 경우도 있다. 2012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사구조 개선 현황을 ‘취업 중심 실용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국어국문학과가 <커뮤니케이션문화학부>로 명칭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2월에 발표된 개선안에는 <미디어창작학과>로 명칭 변경이 예고되었었는데 실제 구조조정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창작’은 국어국문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문화’는 국어국문학의 전공 정체성이 완전히 탈색되었다.

이처럼 국어국문학이라는 명칭이 부담되기 시작한 데에는 오랫동안 대학을 지배해온 아카데미즘의 퇴조와 관련이 있다. 형식적 전통적 권위를 중시하고 학문의 순혈주의를 지지해왔던 아카데미즘은 2000년 이후 대학에 자유전공이 등장하고 통섭과 융섭을 키워드로 한 학제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통섭이라는 화두를 자연과학에서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인문학으로서는 뼈아픈데 정보화 시대의 사유와 성찰의 DNA 염기서열을 아카데미즘이 해석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근간으로 유지되어온 인문학도 퇴조할 수밖에 없었다. 한때는 시대정신을 선도했던 인문학이 기술의 진보를 근근이 해석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면서 문학, 역사, 철학은 배우면 좋지만 안 배워도 큰 지장 없는 장식용 학문으로 전략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은 당연히 국어국문학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겠지만 문제는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교수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임의로 4년제 대학 두 군데의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을 조사해 본 것이다.

---

3) 전주대 국어국문학과에서도 전공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어문학과>의 명칭 변경에 67%의 학생들이 찬성하여 2013학년도부터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문학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 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계
	교 과 목	1 2	교 과 목	1 2	교 과 목	1 2	교 과 목	1 2	
이 수 분 야 구 분	국문학개론	3			현대문학사				
	국어학개론	3					3		
필수		6					3		9
전 공 선 목	한국한문학강독	3	국어학개론	3	국어사	3	국어방언학	3	
	문학과 환경	3	상작론	3	국어자료의이해	3	고전소설론	3	
			현대시강독	3	국문학사	3	고전시가론	3	
			국어문자생활의실제	3	조선조시가론	3	동아시아비교문학론	3	
			말하기의이론과실제	3	현대문학교육론	3	비평론	3	
			고전수필의이해와강독	3	소설론	3	외국어로서의한국어	3	
			시조가사선독	3	텍스트언어학	3	교육	3	
			현대작가론	3	복합어어어해	3	문학과정교	3	
			현대수필론	3	한국고전문학사상의	3	디지털시대의문학	3	
			국어음운론	3	이해	3	국어학연구사	3	
			구비문학론	3	민속학의이해	3	참가어요	3	
			고전소설강독	3	한국현대시인론	3	문예사조	3	
			현대소설강독	3	페미니즘문학론	3	개화기문학론	3	
			대중매체와국어	3	국어문법론	3	설화론	3	
			언어와문학	3	국어이론	3	문학과정상예술	3	
			한국고전문학배경론	3	한국한문학론	3			
					한국회곡사	3			
				비교문학	3				
				시론	3				
				훈민정음의이해	3				
				국어문장의차질세	3				
				고전비평선독	3				
				한국고전작가의이해	3				
				현대회곡론	3				
	6	6	27	21	36	36	24	18	174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구분	과목명	이수 구분	과목명	이수 구분	과목명	이수 구분	과목명
국어학	전공 기초		전공 핵심	우리말과글의역사	전공 핵심	국어의이론	전공 선택	대중매체와국어
			전공 핵심	우리말소리의이해	전공 선택	국어문장구성의 이해		
			전공 핵심	국어발달구성의이 해	전공 선택	국어방언의이해		
고전문학					전공 핵심	훈민정음과정세 국어	전공 선택	한국고시가론
					전공 핵심	구비문학론		
	전공 기초	한국문학의이해	전공 핵심	고전소설론	전공 선택	한국근세시가론	전공 선택	
현대문학			전공 핵심	한국한문학의이해	전공 선택	고전문학비평의 이해		
			전공 핵심	한국현대문학비평 론	전공 선택	고전문학사		
			전공 핵심	현대소설의이해	전공 핵심	한국현대시읽기	전공 선택	현대소설작가의 이해
			전공 선택	현대시인론	전공 핵심	현대시론	전공 선택	문학과정상예술
			전공 선택	창작이론과실제	전공 선택	비교문학론		
교육 및 문화			전공 선택	디지털서사	전공 선택	한국현대문학사		
					전공 선택	국어교육론	전공 선택	국어논리및논술
					전공 선택	국어교재연구및 지도법	전공 선택	외국어로서의한 국어교육
						전공 선택	평집의이론과실 제	

90년 이후 출생한 디지털 세대들은 이 교육과정을 실용적이거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어국문학(과)이 국어교사를 배출하는 기능을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면 거의 모든 국어국문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부터 폐기해야 한다. 편제 정원의 10% 이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중등교원 자격증 때문에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전공 교과목 수와 자격증을 받고 실제로 교단에 서는 졸업생 비율을 생각해 보면 ‘교직 과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제도인지 알 수 있다.

국어국문학의 위기는 선생과 학생이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자신이 공부했던 낭만적인 20세기를 추억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21세기 생존경쟁의 밀림에서 88만원부터 시작한다. 그들이 강의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부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 3. 이제 문제는 스토리텔링이다

최근 들어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중 하나가 스토리텔링이다. 관광스토리텔링, 브랜드스토리텔링, 마케팅스토리텔링, 공간스토리텔링, 게임스토리텔링, 에듀테인먼트스토리텔링, 소비자즈니스스토리텔링 등 문화산업의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이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고, 스토리텔링거리, 스토리텔링수학,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 같이 기존의 단어에 스토리텔링을 접두사로 붙여 원의미보다 불록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히 스토리텔링의 전성시대라 할만하다.

정보화시대에 스토리텔링의 유행은 우리 사회가 다시 신기술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휴대하기 간편한 구슬도구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광역소통의 SNS 서비스를 즐기는 디지털노마드들은 기왕의 문자세대가 향유했던 아날로그 문화와는 그 결이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다.

케이블채널 Mnet·tvN이 방영한 ‘슈퍼스타K2’를 보지 않았더라도 어지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허각’이라는 이름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결손가정

에서 자란 중학교 중퇴학력이 전부인 환풍기 수리공 허각이 오직 노래실력 하나로 13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결국 우승하는, <인간극장>에나 나올법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지난 몇 달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외모도 평범하고 키도 작은 그가 미국 아메리칸 아이돌 본선 진출 경력에 세련되고 잘생긴 한국계 미국인 존박을 누르는 순간 대중들은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리얼리티 쇼의 짜릿한 감동을 맛보았을 것이다.

‘슈퍼스타K2’의 엄청난 성공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대중의 욕망을 포착해 그것을 조직화해내는 문화산업의 스토리텔링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것이다. 허각을 주인공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쓴 것은 대중이지만, 그것을 연출한 것은 대중의 욕망을 상업화하는 문화산업의 시스템이다. 대중은 이야기를 욕망하고 시스템은 이야기를 가공하며, 시장은 이야기를 상품화한다. 이제 이야기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스토리텔링 산업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나갈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대학들은 변화를 선도해나가기는커녕 변화의 속도조차 따라잡지 못해 휘청거리고 있다.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과거의 지식을 토대로 미래의 지식 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의 물적 의식적 토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

단언컨대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집단지성의 일원으로 자신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줄 아는 창조적인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이다.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은 인문학적 감수성이지만, 대중의 욕망을 분석해내는 것은 사회과학 방법론이며, 상상과 추상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자연공학의 기술이고, 미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술학의 심미안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의미의 ‘스토리텔링’ 안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이 다 들어있다.

스토리텔링이 아주 오래된 관습적 전통이면서 동시에 미래에도 유효한 가치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어라는 수단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각 시대의 기술적 진보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구술시대에 출발한 스토리텔링이 문자시대, 필사시대, 인쇄시대를 거쳐 디지털시대로 진입하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야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결합하여 변주와 확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미래의 학문이며, 통섭(通涉, Consilience)과 협업(協業, co-operation)의 학문이며, 국어국문학의 生門이다.

생각해보면 국어국문학의 본질은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의 표현 수단은 언어이고, 표현 양식은 문학이다. 텔링의 수단은 언어이지만 텔링의 양식은 문학이다. 우리는 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는 스토리텔링의 근간이고, 서정과 서사는 스토리텔링의 기둥이며, 현실과 상상, 논픽션과 픽션은 스토리텔링의 두 얼굴이다. 국어국문학이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것은 학문의 본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적 지식을 생산해내는 이중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4. 실용 교과목 개발 사례 : 스토리텔링 교육을 접목한 산학협력프로젝트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전라북도청이 공모한 2012년도 인문예체능커플링사업에 ‘스마트콘텐츠창의인력양성사업’이라는 주제로 선정되었다. 스마트콘텐츠산업에 필요한 기획 및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1년동안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인턴쉽, 취업동아리 지도, 비학점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커플링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과목에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교과목이 개설되었다는 것과 산학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산학협력은 국어국문학과는 무관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기술인력 만큼이나 기획이나 스토리텔링 전문 인력 필요하며,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문화산업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커플링사업 참여를 계기로 스토리텔링을 실제 수업에 접목시켜 이론과 실습을 통한 팀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보고자 <이야기문화답사>라는 신규 교과목을 2012학년도 1학기에 개설 운영하였다.

시수	수업 내용	수업형태
1주	이론 수업 『이야기의 힘』	강의 및 토론
2주	이론 수업 『5가지만 알면 나도 스토리텔링 전문가』	강의 및 토론
3주	이론 수업 『스토리텔링의 기술』	강의 및 토론
4주	팀별 주제 및 아이템 선정	조별 활동
5주	예비 기획안 작성	조별 활동
6주	예비 기획안 발표	전체 활동
7주	시장 조사, 수요 조사, 회사 방문, 멘토링 기획서 작성, 수정, 보완, 완성	조별 활동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기법	전문가 특강
15주	기획서 프레젠테이션 심사	전체 활동

27명의 학생들이 모두 6개의 팀으로 진행된 산학협력프로젝트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이론으로 배운 스토리텔링 기법을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능력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였다. 교수가 이론은 강의할 수 있지만 실무 감각과 스킬을 가르치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학생들에게 아이팀 선정시 기업과 매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 조언과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아이팀 선정부터 예비 기획안 발표, 기획서 작성, 프레젠테이션까지 학생들 스스로 팀활동을 통해 수행해나갔고 15주차 팀별 프레젠테이션 때에는 순창 햇빛 축제스토리텔링, 소곡주 마케팅스토리텔링, 상판편백나무숲 공간스토리텔링, 전주대학교 브랜드스토리텔링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이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학생들이 국어국문학의 쓸모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비문학 시간에 들었던 신화, 전설, 민담이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변주되고 확장되는 중요한 이야기원형이며, 문학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습득된 반성적 사유와 감수성이 아이디어 발상을 촉진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시키는데 문장력과 표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강의실 안의 지식을 강의실 밖으로 끌어내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2012학년도 2학기에는 <이야기문화답사>를 확장하여 <문화콘텐츠팀프로젝트>라는 과목으로 더욱 체계적인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야기문화답사>가 스토리텔링의 이론을 문화산업 영역별로 살펴보고, 기획과 창작 실습을 통해 스토리텔링기획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 목적이 있다면, <문화콘텐츠팀프로젝트>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콘텐츠기획을 기업 실무자와 학생을 멘토 - 멘티로 묶어주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해봄으로써 현장 감각을 익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한 결과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졌으며, 기업체와 공동으로 작업한 팀프로젝트 결과물 역시 수준이 향상되었다.



<산학협력프로젝트 결과 발표회>



###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취업제외에 대한 의사



### ■ 교과과정 변경 찬성여부 / 학과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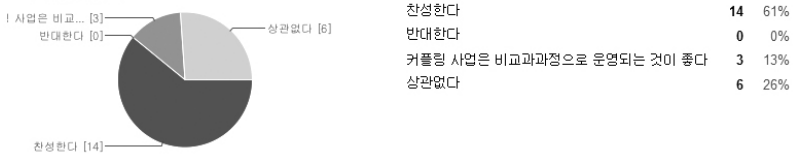
교과과정 변경	찬성	반대	비교과과정으로 운영	상관없음
응답결과	14(61)	0(0)	3(13)	6(26)

학과발전 도움	큰 도움이 됨	어느 정도 도움이 됨	별 도움이 않됨	전혀 도움이 않됨
응답결과	3(13)	11(48)	5(22)	4(17)

☞ 스마트콘텐츠커플링사업 참여로 인하여 학과의 교육과정이 현장중심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 학생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61%의 학생은 스마트콘텐츠커플링사업 참여가 학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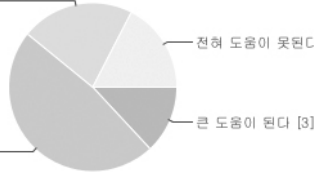
### 교과과정 변경여부



### 학과발전에 도움되는 정도

이 되지 못한다 [5]

도움이 된다 [11]



큰 도움이 된다 3 13%

어느정도는 도움이 된다 11 48%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5 22%

전혀 도움이 못된다 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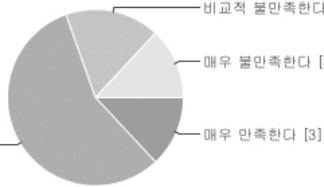
### ■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비교적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결과	3(13)	13(57)	4(17)	3(13)

☞ 전체 응답자의 70%가 만족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 전반적 만족도

교적 만족한다 [13]



매우 만족한다 3 13%

비교적 만족한다 13 57%

비교적 불만족한다 4 17%

매우 불만족한다 3 13%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은 국어국문학에 실용 교육과의 매칭을 요구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국어국문학의 3대 분과 4대소분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식의 쓰임새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통섭적인 모색이 될 수 있다.

## 5. 나오는 말

정보사회와 날로 발전해 가는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동안 가장 강력한 서사예술이었던 문학과 영화

의 우월적 지위는 인터랙티브 픽션, 하이퍼 텍스트, 디지털 영화, 컴퓨터 게임 등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기술형(技術型) 서사체가 등장함으로써 위협받고 있다. 이 새로운 이야기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내러티브의 형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이를 총칭하여 ‘디지털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스토리텔링이 기술적 진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래의 스토리텔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세대의 감수성에 어필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문자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비트화 시켜서 문자 이외의 다른 코드들(음악, 사진, 동영상 등)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때 모든 코드들은 각각의 매체적 특징을 상실한 채 비트로만 표시된다. 우리가 디지털서사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문자만’이 아니라 ‘문자도’ 포함되어 있는 통합적 서사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스토리텔링은 통합의 학문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 등 학문 제영역 간의 통합이며, 기존 서사학과 새로운 매체 미학의 통합이며, 예술과 기술의 통합이며, 경험과 체험의 통합이다.

미래의 대학은 전공 지식을 강화하는 I자 인재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제너럴리스트인 T자형 인재를 배출해 내어야 한다. 스토리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들이 씨줄과 날줄을 형성, 궁극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림판을 완성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통섭 교육의 핵심은 대학의 자유로운 도전 정신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우리가 도전 정신을 잃고 지식의 도그마에 스스로를 가뒀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이 과거가 국어국문학에 준 유산이라며, 디지털스토리텔링은 국어국문학이 미래에 전해 줄 선물이다. 가장 진보적이고 전위적인 학문으로 21세기에 국어국문학은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기문, 「국어국문학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어국문학』 제114권, 국어국문학회, 1995.
- 시마무라 테루, 「일본 대학 구조개혁에 있어서 ‘국어국문학과’의 현실과 국문학의 진로」, 한국고전문학회 기획학술대회 자료집, 2003.
- 이용욱, 「디지털서사자질 연구」, 『국어국문학』 제158권, 국어국문학회, 2011.
- \_\_\_\_\_, 「한국형 창작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DB 구축방안 연구」, 『디지털스토리텔링 연구』,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2011.
- \_\_\_\_\_. 『온라인게임 스토리텔링의 서사시학』, 글누리출판사, 2009.
- 한기형, 「국어국문학(과)의 미래지향적 변화 방향」, 한국고전문학회 기획학술대회 자료집, 2003.

## 【국문 초록】

국어국문학의 본질은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의 표현 수단은 언어이고, 표현 양식은 문학이다. 텔링의 수단은 언어이지만 텔링의 양식은 문학이다. 우리는 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는 스토리텔링의 근간이고, 서정과 서사는 스토리텔링의 기둥이며, 현실과 상상, 논픽션과 픽션은 스토리텔링의 두 얼굴이다. 국어국문학이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것은 학문의 본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적 지식을 생산해내는 이중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 기술적 진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래의 스토리텔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세대의 감수성에 어필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문자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비트화 시켜서 문자 이외의 다른 코드들(음악, 사진, 동영상 등)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때 모든 코드들은 각각의 매체적 특징을 상실한 채 비트로만 표시된다. 우리가 디지털서사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문자만’이 아니라 ‘문자도’ 포함되어 있는 통합적 서사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스토리텔링은 통합의 학문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 등 학문 제영역 간의 통합이며, 기존 서사학과 새로운 매체 미학의 통합이며, 예술과 기술의 통합이며, 경험과 체험의 통합이다.

미래의 대학은 전공 지식을 강화하는 I자 인재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제너럴리스트인 T자형 인재를 배출해 내어야 한다. 스토리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들이 씨줄과 날줄을 형성, 궁극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림판을 완성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통섭 교육의 핵심은 대학의 자유로운 도전 정신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우리가 도전 정신을 잃고 지식의 도그마에 스스로를 가뒀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이 과거가 국어국문학에 준 유산이라 하며, 디지털스토리텔링은 국어국문학이 미래에 전해 줄 선물이다. 가장 진보적이고 전위적인 학문으로 21세기에 국어국문학은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

주제어 : 국어국문학, 스토리텔링, 디지털스토리텔링, 산학협력

【Abstracts】

## Crisi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Storytelling

Lee, yong-Wook

Storytelling is the essence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tory of the means of expression language is a form of expression, literature. Means the language of storytelling, but it is telling the form of literature. We had forgotten that too clear. Real and imaginary, non-fiction and fiction reading, writing, speaking, and listening is the foundation of storytelling and the lyric and epic storytelling pillars, and the two faces of the storytelling. Korean Literature that focused on storytelling can achieve it without compromising the original nature of the study of practical knowledge to the demands of the era, producing a dual effect.

The impact of technological advances and storytelling are closely related to, if we pay attention, though, that in the way of digital storytelling. The storytellers of the future by using digital technology to create digital content that can appeal to the sensibility of the digital generation in a multi-player should be. Bit characters rather than the character to handle alone set digital technology with a character other than the code (music, pictures, videos, etc.) is to integrate At this time, all of the code they los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dium and bits are displayed only. It 'characters', but we have to admit that there's something that can be

named called digital narrative if 'character' which contains integrated narrative should be. Therefore, the integration of digital storytelling is a discipline. My area disciplines, including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Art, and the integration between the existing and new media aesthetics narratology of integration, and the integration of art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the future talent, not the party to strengthen the technical knowledge I produce talent specialist, generalist, T-shaped. Ultimately complete storytelling Paint outgoing future-oriented education of consilience core story, mediated by a variety of academic areas, form the fabric of the University free spirit of challenge.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to lose themselves to be trapped by the knowledge of the spirit of the challenge we have is because by oneself lock up. Said the historical heritage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ave storytelling, digital storytell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future, give a gift.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21st century as the most progressive and avant-garde studies should start.

Key words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torytelling, digital storytelling,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